

‘자연물이 된 아이’ 화소에 표상된 돌봄의 문제적 양상을 활용한 다문화 아동의 상호문화 주체성 모색 —결혼이주민 구술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김정은

전국대학교 서사와문학치료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서론

2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설화 속 모성 돌봄의 중압과 상호문화 시야의 확장

2.1 필리핀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설화의 구술 양상

2.2 ‘파인애플이 된 아이’에 표상된 모성 돌봄의 양면성

2.3 ‘백 개의 눈’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의 시야 확장

3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설화 속 부성 훈육의 폭력과 상호문화 주체성의 모색

3.1 인도네시아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설화의 구술 양상

3.2 ‘호수’로 정화된 부성 훈육의 통제 욕망과 폭력

3.3 ‘섬이 된 아이’ 표상을 활용한 다문화 아동의 상호문화 주체성

4 결론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383)
이 논문은 한국여성문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2021.04.24.)에서 “왜 지금 아동인가: 아동과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사유”의 기획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가 깊어지도록 지정토론을 해주신
덕성여자대학교 황인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 글은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상호문화 감수성과 동시에 여성주의 시각의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결혼이주여성이 구술한 설화 중, 돌봄의 통제 욕망으로 ‘자연물이 된 아이’ 화소가 있는 필리핀의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설화와 인도네시아의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낯선 아시아 문화와 자연스럽게 상호문화를 소통하며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돌봄을 둘러싼 통제 욕망의 심층적 관계를 더욱 다양한 시야에서 풀어내고자 했다.

필리핀 설화 중 백 개, 천 개의 눈으로 ‘파인애플이 된 아이’의 상징을 교류하는 과정은 지나친 애정으로 아동을 돌보며 통제하는 모성 돌봄의 중압과 갈등 양상을 사유하게 한다. 인도네시아 설화 중 토바 호수 전설의 ‘섬이 된 아이’의 상징을 교류하는 과정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고 통제하고자 할 때의 폭력적 문제양상에 대한 아들의 대응을 보여준다. 이를 다문화가정으로 확장하여, 현실적으로 돌봄의 과정에서 문화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여성과 아동의 자존감을 변화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의 주체로 인지해 가는 과정을 제안해 보고자 했다.

국문핵심어: 결혼이주여성, 모성 돌봄, 부성 훈육, 다문화 아동, 이주민 구술설화, 상호문화 주체, 통제 욕망

1 서론

이 글은 돌봄의 의미를 다각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 차이로 겪는 돌봄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아동이 문화적 다름으로 차별을 받는 상처를 최소화하며 상호문화의 주체로 성장해 가는 서사적 길을 결혼이주여성들이 구술한 모국의 설화에서 모색해 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전체 혼인 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국제결혼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¹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의 아동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² 특히 한국 남성과 아시아 이주여성의 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점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양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중 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은 거주자격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과 출산 여부에 종속되다 보니, 결혼 초기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 바로 와서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도 배워야 하는 문화적응 시기의 혼란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되고, 출산 후에 낯선 환경에서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문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학교생활에 심리적, 정서적, 학습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의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낯선 환경에서 가지는 양육의 스트레스를 논한 연구³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적응과의 연관성이 논의⁴되어왔다. 그중 정옥희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의 문화충격 정도가 높을수록 지각된 차별감이 높고, 두려움 지각

-
- 1 이태열은 2012년부터 8년 연속 전체 혼인은 줄어드는 데 반해, 2010년 이후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 건수는 점점 늘어 2020년에는 10.3%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태열, 「최근 국제 혼인 증가의 특징」, KIRI 리포트(포커스), 2020, 23-31쪽.)
 - 2 신호진은 이미 2017년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가 10만 명을 초과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호진, 「부모자녀관계와 다문화가족지향성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및 한국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4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598쪽.)
 - 3 이선애·최현정,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1권 2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6, 133-155쪽; 김미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제3권 1호, 아동보호연구학회, 2018, 59-96쪽.
 - 4 이지영·이주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제10권 2호, 대한아동복지학회, 2012, 83-101쪽; 박정윤·채지은·조몽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4권 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0, 101-121쪽.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논하기도 했다.⁵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아동을 양육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존중되어 가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부모교육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화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⁶들이 제안되고 있고, 근원적 대안으로 다문화 감수성,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문화교육의 연구들이 논의되고 있다.⁷ 본 논의 역시 한국사회의 돌봄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타자의 문화와 갈등을 공감하고, 다양한 준거와 대안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사고 틀을 전환해 가는⁸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는 연구 방향을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그동안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되고 동화되는데 중심을 두었다면, 상호문화 감수성은 문화적 정체성을 자문화 중심적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이질적인 타문화와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정체성을 재구성해 가고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다.⁹ 이 과정을 통해

5 정옥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0권 2호,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3, 23-37쪽.

6 변미희 외,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제8권 2호, 한국부모교육학회, 2011, 5-29쪽.

7 현재 상호문화 감수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베넷의 DMIS 이론은 상호문화적 감수성, 상호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상호문화역량, 문화적 감수성, 다문화의사소통능력 등으로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본 논의에서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영순·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제8권 3호, 한국국제교류문화학회, 2019, 47-74쪽; 김하나·이인재, 「교과교육학: 초등학생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그림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윤리교육연구』 제33호,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1-25쪽; 선주원, 「상호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과 학습 활동」, 『국제이해연구』 제12호,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7, 89-120쪽; 김정은, 「아시아 열두 띠 설화의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화교육」, 『구비문학연구』 제60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21, 119-159쪽.)

8 김정은, 앞의 글, 129쪽.

9 위의 글, 123쪽.

자문화 중심의 관점에서 민족상대주의 시각으로 시야를 확장해 갈 때 상호문화 감수성이 신장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한국의 문화나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를 소통하고 재구성해 가는 상호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서적 길을 이주민 구술설화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은 상호문화 감수성만이 아니라, 동시에 여성주의 시각의 접근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인 남편과 아시아 아내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가 짙다는 선행 논의들을¹⁰ 보면,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가부장적 태도가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에서 한국 남성이 가부장의 특권으로 아내와 자식을 대할 때 권위의식과 폭력적인 언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가부장적 태도는 국가 간 경제적 차이가 부부관계에서 계급관계화¹¹되면서 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여성인가, 엄마가 어느 나라 국적이었는가가 보이지 않는 계급을 형성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더욱 취약하게 되고, 가부장의 폭력은 극대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 나라의 가치는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준거로 바라볼 수 있음에도, 서양의 근대적 잣대와 경제적 차이로 인한 편견을 가지고 한국의 자문화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만하며, 경제적·문화적 우위에 대한 인식으로 약자를 통제하려는 욕망과 태도가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 요컨대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둘러싼 여성과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 감수성을 신장하며 문화적 다름과 차이에 대해 다양한 준거를 생성해 가고, 취약한 대상에 대해

10 김명혜, 「한국사회에서의 결혼 이주현상과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에 관하여: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의 행복한 결혼일까?」, 『현대사회과학연구』 제21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101-122쪽; 김미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제3권 1호, 한국아동보호학회, 2018, 59-96쪽; 장진태,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콤플렉스 및 차별인식: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0권 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1755-1767쪽.

11 김미애, 앞의 글, 63쪽.

지배·조절·통제하려는 가부장제의 욕망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가는 연구 방향이 필요하다.

이에 돌봄이 양면성과 통제 욕망의 문제 상황을 상징화한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설화에 주목하여, 문화적 편견으로 숨겨졌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며,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해 가는 삶의 태도를 형성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이주민들의 모국의 설화를 구술하도록 하고 이를 자료로 집대성하는 연구를 수행¹²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자연과 문화가 응축된 전설과 삶의 방식이 상징적으로 표상된 민담을 구술하며 자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다. 구비설화에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동시에 상징적으로 기억에 각인하게 하는 이야기 요소가 있는데, 바로 ‘화소’이다. 화소에는 그 나라의 지역적·민족적 특성이 응축되어 있다 보니,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를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풀어가는 과정은 낯설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문제를 더욱 확장해서 사유하게 해 주는 힘이 있다.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를 통해 각 민족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이 담겨 있는 낯선 화소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가는 과정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해 가는 일’로¹³ 이어질 수 있다. 문화적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게 되기도 하고, 다름과 낯섬을 통해 기존의 사유보다 다양한 준거로 삶의 가치를 생성해 내게 되는 것이다. 화소가 이야기 내부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연구방법으로 하여, 가부장적 문제, 여성의 돌봄 억압, 그리고 상호문화 주체성 모색의 미진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돌봄의 통제 욕망에 대한 아동의 대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12 본 연구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분야 토대사업인 『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구축』프로젝트(2016년 9월-2019년 8월)에 참여하며, 이주민들 모국의 설화를 들으며 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의 결과로 전국에 있는 28개국의 134명의 이주민들을 통해 1,493편의 설화, 생애담, 수수께끼, 속담, 금기를 정리할 수 있었고, 1,493편의 모든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DB화된 각 나라의 설화별로 전사한 한글파일, 음성파일이 무료로 공개되고 있으며, 나라, 제보자, 제목, 주제어로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13 김정은,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38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233쪽.

는 ‘자연물이 된 아이’ 화소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설화에 주목하여, 다문화가정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을 풀어갈 상호문화의 대안적 가치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주민을 만나며 집대성한 1493편의 구술설화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DB로 구축되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정리되었다.¹⁴ 1493편의 설화 중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민 3명이 구술한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설화는 ‘돌봄’의 양면성에 대해 어머니와 아동의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논할 수 있고, 두 명의 인도네시아 결혼이주민이 들려준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설화는 가부장 문화가 가족관계를 통제할 때 발생하는 돌봄의 폭력을 잘 표상하고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설화를 바탕으로, 이주민 설화의 화소로 상징된 낯선 아시아 문화와 자연스럽게 상호문화를 소통하며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돌봄을 둘러싼 통제 욕망의 심층적 관계를 더욱 다양하게 풀어내고,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돌봄의 과정에서 문화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여성과 아동의 자존감을 변화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의 주체성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설화 속 모성 돌봄의 중압과

상호문화 시야의 확장

2.1 필리핀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설화의 구술 양상

이주민 구술설화 조사 과정에 만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따뜻한 나라인 필리핀의 지역적 특성이 담긴 열대과일에 대한 전설을 많이 들려주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 두리안, 망고, 과야바, 파인애플 등이 사실은 사람이거나 사람의 일부였다는 것에서 ‘문제적 관계’의 의미를 기억에 각인하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전설들이다. 그중 「파인애플이 된 아이」는 필리핀 출신의 세 명의 결혼이주민에게 들을 수 있었다. 따뜻한 지역인 필리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파인애플에 대한 유

14 1493편의 이주민 구술 설화의 자료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성과포탈 『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설화 구술자료 DB』에서 볼 수 있다. 자료 링크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6-KFR-1230004>

래담인데, 조사한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다.

자료 번호	제보자 이름	국적	이주 상황	설화 제목	조사 지역	조사 일시
1	롯데파네스	필리핀	결혼 24년차	파인애플이 된 아이	경기도 화성시 향남동	2017.11.08
2	멜로니	필리핀	결혼 6년차	파인애플이 된 아이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2018.05.24
3	마리사콘데	필리핀	결혼 11년차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2019.03.07

롯데파네스 제보자는 총 세 번에 걸친 조사를 통해 신화적 전설을 비롯한 23편의 다양한 필리핀 설화를 조사팀에게 들려주었다. 멜로니 제보자는 자녀가 어려서 짧게 두 번을 만나 8편의 자료를 들을 수 있었고, 마리사콘데 제보자는 조사 취지를 듣고 흔쾌히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에 조사팀이 제주도로 찾아가서 만나 총 17편의 설화를 들을 수 있었다. 세 명의 제보자가 구술해 준 「파인애플이 된 아이」 이야기의 공통된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피나라는 아이와 엄마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는 피나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
- ② 피나는 자기만 아는 제멋대로인 아이가 되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 ③ 하루는 엄마가 병이 나서 피나에게 죽을 좀 쏘어달라고 했다.
- ④ 피나는 쌀이 어디에 있는지, 술이 어디에 있는지, 나무 주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몰라서 계속 누워있는 엄마에게 계속 물었다.
- ⑤ 화가 난 엄마는 피나에게 눈이 백 개, 천 개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짜증을 냈다.
- ⑥ 피나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엄마는 잠이 들었다.
- ⑦ 잠에서 깬 엄마는 피나라를 찾으려 여기저기를 다녔다.
- ⑧ 엄마는 피나가 자주 노는 곳에서 피나와 똑같은 노란색 옷을 입은 아

이를 찾았는데, 자세히 보니 피나가 아니라 눈이 백 개 달린 열매가 있었다.

- ⑨ 그 과일을 필리핀 사람들은 피나라고 불렀고, 이후에 열매가 계속 생겨
기자 사람들과 나눠 먹게 되었는데, 그 과일이 파인애플이다.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가 엄마가 말한 대로 눈을 백 개, 천 개 가진 과일로 변했는데, 그게 바로 파인애플이라는 내용이 낯설면서도 충격적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현재에도 피나(핀야)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 설화를 듣고 나면 필리핀 사람들처럼 파인애플에서 피나의 여러 눈을 보게 된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파인애플을 보면서 평소에 자기만 알고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는 이렇게 된다는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그렇게 다 해주면서 키우면 파인애플 같은 아이를 만든다는 경고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재밌는 건 이 이야기를 대학의 수업에서 들려주면 피나의 마음에 이입하여 엄마의 태도가 문제 있었다고 지적하며 피나가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학생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⁵ 그만큼 ‘백 개의 눈’으로 형상화된 화소인 ‘파인애플’

15 아이가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게 제대로 훈육하지 않은 어머니의 행동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자립심을 키워나가려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의 지지와 응원일 텐데,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의 마음속에 뾰족하게 가시가 자라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테마고전특강 2020-1, 3학년, 신○○) 평소에 일 한 번 시키지 않고 편하게만 있으라고 했던 엄마가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것은 피나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못한다고 해서 타박하는 엄마의 행동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갑자기 세상 밖에 나가게 된 피나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을 못한다’, ‘남들은 눈 두 개로도 하는 일이 나에게는 백만 개, 천만 개 필요할 정도로 잘하지 못한다’는 자기 비판과 남과의 비교로 이어졌을 수 있다. 이 설화에서 눈처럼 생긴 무늬가 많은 과일인 파인애플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많은 눈으로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는 피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파인애플이 된 아이」 이야기의 특별한 화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자의적인 의지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부모도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과 부모 모두의 마음의 준비와 노력이 동반될 때 한 아이가 진정한 어른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뜻깊었다. (테마고전특강 2020-1, 3학년, 진○○)

이 만들어진 데는 ‘엄마의 돌봄 태도’와 ‘피나의 주체성’이라는 문제가 대립적으로 팽팽하게 얹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2 ‘파인애플이 된 아이’에 표상된 모성 돌봄의 양면성

먼저 엄마를 서사 주체로 행위의 의미를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가정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부재하다. 마리스콘데 제보자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둘만 살아서 애지중지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지만, 롯파네스, 멜로니 제보자가 구연한 이야기에서는 둘만 사는 것에 대한 이유가 부연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과 돌봄을 모두 여성이 책임지고 있고, 일하는 아버지는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자식이 자랄 때 관계를 맺는 가부장제 가족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피나의 엄마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최선을 다해 피나를 돌봤을 것이다.

그런데 왜 피나엄마가 최선을 다한 돌봄은 실패했을까? 모성은 임신과 출산, 자녀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투영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로 작동되고 있어¹⁶ 현실적으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영아기는 ‘절대적 의존’의 시기로 돌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맺기가 필요하고, 가부장 사회의 통념에서 아동의 돌봄은 여성의 모성에 의존해 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널드 위니캣 역시 “인간의 성장은 홀로 서는 과정”이지만, “아기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관계의 한 부분”으로 단일체를 이루는 모성 돌봄에 의존하는 시기¹⁷가 있음을 논했다. 이때 자녀와 융합되어 단일체를 이루는 것 같은 모성 돌봄의 시간에는 여성에서 엄마로 삶을 명명하며 자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중압감이 생긴다. 임신과 출산, 자녀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투영되는 복합적인 개념인 모성

16 이정옥,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 『여성문학연구』 제3호, 한국여성문학회, 2000, 119쪽.

17 도널드 위니캣은 유아의 실제적인 신체의 무능은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의 필수요건이 “촉진적 환경” 또는 “유아와 함께 단일체를 이루는 모성적 돌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마텔레인 데이비스·데이빗 웰브릿지, 이재훈 역, 『울타리와 공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48쪽.)

이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로 작동되고 있기¹⁸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돌봄의 중압감은 절대적 의존시기만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도 이어진다. 특히 여러 자녀를 두는 과거 전통사회와 달리 저출산 시대의 한국사회가 한두 자녀만을 낳는 경향으로, 한 아동의 돌봄에 있어서 과거보다 그 관심과 기대가 높아져 오히려 돌봄의 형태가 과보호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과보호는 애정에 기반을 둔 과보호라는 점에서 복잡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애정적이며 통제적’¹⁹이라는 것이다.

이런 돌봄에 대한 중압감이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설화에서는 엄마가 아픈 것으로 상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올라온 분노의 감정에 지배받는 극단적 모습이 엄마의 “눈이 백 개, 천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담겨 있다. 무리한 돌봄, 희생적 돌봄 이면에 모순이 있다.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기 때문에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해준 만큼 아동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 심리가 있어서, 충족이 안 되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엄마라는 존재일지라도 양육의 태도와 모성적 돌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실패하며 바뀌어가기도 하고, 때론 피나의 엄마처럼 어느 순간 잘 돌봐주다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변덕스럽게 돌변하는 순간도 생긴다. 자녀가 성장하며 의존하는 시기를 넘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져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엄마의 무의식적 신호일 수도 있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절대적 의존의 시기에서 상대적 의존의 시기를 지나 실제적인 돌봄 없이 지낼 수 있는 수단들을 발달시키며 독립관계로 전환해 가는 존재²⁰라는 것을 엄마도 안다. 그럼에도 뭐든지 해주었던 융합된 방식이 익숙한 관계의 패턴으로 자리 잡히면서, 엄마가 돌봄의 태도를 한 번에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동안 자녀가 원했던 것을 해주었던 방식이 더 편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해주었던 돌봄의 태도는 피나가 의존

18 이정옥, 앞의 글, 119쪽.

19 김지연·오경자,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0-3호, 한국심리학회, 2011, 648쪽.

20 마텔레인 데이비스·데이빗 월브릿지, 앞의 책, 48쪽.

적 태도에 머물게 했으며, 엄마의 말이 아니면 쌀, 주걱, 숟도 하나 찾을 수 없는 아이가 되게 했고, 엄마가 화집에 한 “눈이 백 개, 천 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순응하며 그대로 눈만 남아 움직일 수 없고 보기만 하는 파인애플이 되게 한다고 단호하게 말해준다. 아이의 욕망을 들어주는 엄마의 돌봄은 겉으로 좋은 엄마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엄마가 해주는 대로 받으며 의존에 고착된 아이는 자립이라는 성장의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영구적 퇴행의 상태’²¹에 머물게 되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자신의 존재적 모습까지 맡기게 되었다는 것을 파인애플의 눈으로 강렬하게 상징하고 있다.

결국 희생적 돌봄은 오히려 아동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높아지게 하고, 자신보다 유능한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못 하고 부모가 원하는 삶으로 통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엄마가 말하는 대로 눈이 많아졌지만 원래 피나는 사라졌다. 한국사회의 돌봄 문화에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잘 돌봐주는 유능한 부모가 아동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런 돌봄 문화는 아동의 ‘나다움’이 사라지게 하는 일일 수도 있음을 파인애플이 된 아이로 사유하게 한다.

2.3 ‘백 개의 눈’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의 시야 확장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돌봄의 문제의식을 다문화 사회의 문제와 연결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지나친 애정을 가지는 돌봄이 오히려 의존적이게 된 자녀를 믿지 못해서 불안하게 바라보고, 부모의 시야에서 자녀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교육에 대한 과잉기대’는 부모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능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육에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돌봄의 태도에 대해 필리핀 설화인 백 개, 천 개의 눈으로 남은 아이인 파인애플의 표상은 지나친 애정으로 아동을 돌보는 태도는 오히려 아동이 더욱 부모를 의존하게 하면서, 부모의 시선으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볼 힘을 차단하면서,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부모의

21 위의 책, 148쪽.

말에 자신의 삶을 한정 짓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적 차이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유능한 부모가 오히려 모든 것을 해줄 때 아동의 의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동은 유능한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에 스스로 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필리핀 「파인애플이 된 아이」 설화를 통해 돌봄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긴 안목으로 돌봄을 보았을 때, 성장기 아동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보다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응원하는 태도가 오히려 삶의 주체가 될 힘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지는 돌봄의 불안을 완화하는 너른 시야를 가지게 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엄마의 말대로 백 개의 눈을 가진 파인애플이 된 것은 피나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좌절했다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는 것일까?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파인애플에 머물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려면 어떤 서사적 길을 내야 하는 것일까? 핵심화소로 기억에 각인하게 하는 ‘파인애플의 수많은 눈’의 상징성으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파인애플의 수많은 가짜 눈이 아닌 진정한 나의 눈을 찾을 것인가?’라는 서사적 화두를 던져준다. 엄마의 말에 지배받지 않고 엄마에게 삶을 통제받지 않도록 엄마의 눈과 분리된 진짜 피나의 눈을 떠가야 한다. 엄마의 눈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통찰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상징의 의미가 이야기 밖에서 함께 전승되는 것이다. 파인애플이 된 피나의 현재는 자신의 삶으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한 상태지만, 엄마의 말에 지배받지 않고 엄마에게 삶을 통제받지 않도록 피나의 눈이 엄마의 눈과 분리되어 수많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움직여 나갈 때, 자신의 삶으로 자립해 나갈 몸과 다리, 손이 점차 자라날 수 있다는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결국 아동이 돌봄을 받는 궁극적 의도는 엄마와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분리하여 엄마로부터 벗어나 삶의 주체가 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은 파인애플로 상징되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야에서 시작된다는 서사적 길을 내 볼 수 있다.

‘백 개의 눈’이 상징하는 바를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어떻게 상호문화의 주체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한국사

회에서 자문화에 대한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좁게 한다. 베넷의 상호문화적 감수성의 발달 모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태도는 차이에 대한 방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²²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한국의 자문화에 대해 지나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다면 파인애플처럼 다양한 눈을 내재하고 있어도, 자신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다문화 시대에 자문화만의 시야로 형성된 세계관을 과시하고 보호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낯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반면에 다문화시대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야를 가진 존재들이다.

파인애플의 ‘백 개의 눈’ 화소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 상호문화 주체의 시작은 문화적 편견을 내재한 기존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없는 너머를 볼 ‘진짜의 다양한 눈’을 가질 때라고 말해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이미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시야가 자신들에게 내재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깨달아 갈 때 자신을 긍정하는 내면의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필리핀 설화 중 백 개, 천 개의 눈으로 낚은 아이인 파인애플이 가진 상징을 교류하는 과정은 지나친 애정으로 아동을 돌보며 통제하는 한국의 돌봄 문화의 갈등 양상을 사유하게 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가진 너른 시야를 가지게 하는 상호문화 자질을 긍정할 수 있게 한다.

3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설화 속 부성 훈육의 폭력과 상호문화 주체성 모색

3.1 인도네시아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설화의 구술양상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는 인도네시아 전설로 두 명의 결혼이주민에게 들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전설은 지형적 특성이 반영되어, 화산으로 인해 생긴

22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제32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15쪽.

섬, 산, 호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계, 인간관계에 대한 원형적이고 생태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중 토바호수(Toba, Danau)²³는 화산 분화구로 생긴 호수인데,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는 그 호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다. 먼저 2017년에 만난 플레나 제보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며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이주한지 1년이 되었을 때 조사팀을 만나 총 3편의 설화를 구술했는데 그중 2편이 DB화되었다. 이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이야기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구술했다. 2018년 11월에 만난 결혼 이주 12년 차인 수산티 제보자는 차별하게 이야기 하면서도 듣는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는 제보자로, 다른 국적의 이주민들과 함께한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총 8편의 설화를 구술했다. 수산티 제보자는 어렸을 때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²⁴를 구술했다. 두 제보자 모두 어린 시절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구술했는데, 전체적인 서사개요가 비슷하면서도 두 제보자가 풀어내는 과정에서 구술 문학의 특징인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다.

자료 번호	제보자 이름	국적	이주 상황	설화 제목	조사 지역	조사 일시
1	플레나 스콜라스티가 그라티아	인도네시아	결혼 1년차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7.11.22
2	수산티	인도네시아	결혼 12년차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2018.11.29

23 인도네시아 서부, 북수마트라 주 중부에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의 호수로 수마트라 섬 중 북부, 메단 남쪽 약 70km, 바리산 산맥 북부에 있는 칼데라 호수이다. 넓이 1300km². 깊이 529m. 중앙에 사모시르 섬(길이 48km. 너비 16km)이 있고 아사한 강의 수원지로 이 나라 최대의 전원 지대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바 호 [Toba, Danau] (세계인문지리사전, 2009. 3. 25.)

24 두 제보자 모두 이야기의 제목을 「토바호수」라고 했다. 다만 연구자들이 DB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검색의 용이성과 내용의 집작을 위해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로 제목을 수정하였다.

먼저 플레나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의 서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가난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아내가 되어 줄 테니 죽이지 말아 달라고 했다.
- ② 대신 이후에 절대로 자신이 물고기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 ③ 둘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 ④ 물고기 아내는 어린 아들에게 일하는 아버지에게 새참을 가져가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 ⑤ 어린 아들은 새참을 가져가다가 무거워 다 쏟고 나서, 쏟아진 밥을 먹고 잠이 들었다.
- ⑥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던 아버지가 잠자는 아들을 깨워서, 밥은 어디 있냐고 했다.
- ⑦ 아들은 밥을 자신이 먹었다고 했다.
- ⑧ 화가 난 아버지가 “너는 엄마가 물고기니까 그런 거야!”라고 말했다.
- ⑨ 엄마와 아들은 사라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모두 죽었다.
- ⑩ 그곳은 토바호수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비슷한 개요지만 수산티 제보자가 구연한 서사는 플레나 제보자가 구연한 것과 만남이 다르고, 금기를 어긴 이후에 물고기 아내의 눈물이 호수가 되는 차이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가난한 농부가 계속 땅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물고기 여자가 와서 도와줄 테니 자신과 결혼을 하자고 했다.
- ② 대신 자신이 잘못된 게 있어도 물고기 여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 ③ 둘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살았다.
- ④ 아들이 일하는 아빠의 점심을 가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자신이 다 먹었다.
- ⑤ 화가 난 아빠가 ‘너는 인간이 아니야, 물고기 아이야!’라고 했다.

- ⑥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모여서 토바호수가 되었다.
- ⑦ 호수 가운데는 아들 이름인 사모시르라는 섬이 생겼다.
- ⑧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호수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진이 나거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수산티 제보자의 이야기에는 호수 가운데 섬이 아들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는 내용이 더 구술되어 있는 이야기다. 잦은 화산 활동으로 어느 날 칼데라 호가 생기는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가난한 남자가 물고기 아내를 만나면서 가난의 결핍을 해소하게 하지만, ‘물고기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라는 발설의 금기를 어기게 된 결과로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고, 호수가 생겼다는 신이한 이야기다. 이야기 끝에 플레나 제보자는 토바호수 이야기는 진짜라고 덧붙이며 마무리를 했고, 수산티 제보자는 역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호수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부연했다.²⁵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전설을 통해 자연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자연과 더욱 교감하려는 이유를 느끼게 하는 구술 양상을 볼 수 있다.

3.2 ‘호수’로 정화된 부성 훈육의 통제 욕망과 폭력

-
- 25 이 호수 가운데는 어떤 섬이 있어요. 이 섬 이름은 ‘사모시르’ 애기 이름인데, 사람 그렇게 불렀는데. 근데 매년마다 그거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데. 올해는 롬복(지명)이 지진이라서. 롬복도 기도해야 되요, 일 년에 한 번씩. 안 그러면 지진 나서. 근데 그때 당시 기도하고 지진 바로 나요. 그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그니까 그쪽에서,
 “우리 이제 기도하지 말자. 그거는 미신이니까.”
 근데 딱 기도하는 날 배가 89명이 갑자기 그냥 물속에 떨어져서 사람들 다 하나도 살지 못했어요. [조사자: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니까 일 년에 한 번씩 무조건 행사 같은 거 있어요. 우리 뭐 소도 하고, 돼지도 하고. 엄마가,
 “믿던 안 믿던 무조건 해야 돼.”
 [조사자: ‘그걸 안 하면 사고가 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저번 달 189명 호수에서 추락하는 거. 그것도 행사가 안 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부(농부)를 서사 주체로 보면, 어부는 땅을 파기만 하던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자연의 속성을 가진 물고기 아내와 결연하게 되자,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물고기 아내와의 만남은 어부(농부)가 살아온 방식에 새로운 물결을 일어나게 했고, 더 나은 삶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설화의 아버지는 아들이 심부름을 못하자, 아내의 금기를 어기는데, 이때 어부는 물고기 아내에 대해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좀더 자세히 어부가 이렇게 금기를 깬 순간에 어떤 마음이 지배했는지 대립자질을 통해 확장해 가면 다음과 같다.

물고기 아내	여성	동물, 자연	하위의 존재	수성, 인성, 신성
남편	남성	인간	상위의 존재	인성

대립자질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자연과 여성에 대해 인간과 남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얽잡아 보는 태도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플레나 제보자가 구연한 설화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대립이 두드러진다. 동물적 속성인 식욕에 지배당해 아버지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아들의 식욕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아들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의 물고기적 속성이라고 생각하며, 분노로 금기를 깨게 된다. 이때 “엄마가 물고기니까 네가 그렇지!”라는 말은 동물적 속성에 대한 비난과 부정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고, 아들인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배고픔보다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훈육과 돌봄의 태도일 수 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을 잘 돌보기 위한 훈육이라 정당화할 수 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자신을 몰아세우며 화를 내는지 소통이 되지 못한 채 그 역정을 다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상 새참 하나에 금기를 깬 정도로 정작 식욕에 지배를 당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다. 물고기 자식이라서 ‘배고픔’ 하나도 참지 못한다고 아들에게 역정을 내는데, 이 아버지는 사실 자신의 배고픔이 충족되지 못한 것을 아들에게 전가해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

고자 투사(projection)²⁶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투사를 통해 자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먹고 잠이나 자며 아버지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아들을 훈육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노동의 힘듦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분노로 아들에게 “너 인간 아니야. 너는 물고기야. 물고기에서 나온 아이야.”라는 말을 하며 아버지인 자신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아버지 자신의 존재를 우위에 두며, 아들과 엄마는 자신보다 낮은 존재임을 각인시킨다.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내 탓임을 말하기 위해 아내가 금기시하며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냄으로써, 아내와 아들을 통제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위안하는 태도이다.

이때 플레나 제보자의 이야기에서는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 호수를 이루고 모든 것을 없애는 징벌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 경계하게 한다. 물고기 아내보다 남편이 우위에 있고, 아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아버지가 통용되는 현실이지만, 그런 가부장의 부성권력 위에 더 큰 힘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통해 보여주며, 물로 세상을 짝 정화한다. 수산티 제보자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너 인간 아니야. 너는 물고기야. 물고기에서 나온 아이야.”라는 말을 한 것을 엄마가 알게 되자, 엄마가 아들을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로 마을이 잠기는 호수가 생긴다. 함께 한세월 동안 자신을 아내가 아닌 물고기로 바라보았던 상처와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아들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한 슬픔이 이렇게 토바호수처럼 깊고 넓다는 감성을 전달한다. ‘눈물로 만들어진 호수’의 의미는 자연의 눈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부장 사회에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나 결국 가부장 사회에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아들과 여성의 슬픔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6 투사란 자신의 심리상태를 대상에게 반영함으로써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임흥빈·홍혜경 역, 『정신분석 강의』, 2010, 열린책들, 345-346쪽.)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게 되는데, 남성은 여성에게, 백인은 흑인에게, 그리스도교도는 무슬림에게, 나치는 유대인에게 투사를 해왔고 그 결과는 끔찍한 파괴로 나타난다. (로버트 존슨, 고혜경 역,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에코의 서재, 2007, 12쪽.)

‘물고기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금기는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 ‘가부장과 아내’, ‘어른과 아이’가 평등하게 어울려 있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토바호수 전설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 아동, 자연을 통제하고자 하는 가부장적 욕망을 모두 잠기게 하는 이야기다. 이를 통해 가부장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부성권력을 절대화하지 않을 새로운 균형 감각을 가지게 한다. 인간이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통용되는 마을까지 잠기는 호수를 통해 부성권력은 최소화되고, 부성 훈육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정화된다.

3.3 ‘섬이 된 아이’ 표상을 활용한 다문화 아동의 상호문화 주체성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 가부장적인 태도로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그 상처로 인해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다. 인도네시아는 잦은 지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설화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자연을 앞잡아 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유를 자연의 힘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인간은 남성과 여성의 다름, 어른과 아이의 차이, 부의 다름 등으로 보이지 않는 우열의 관계를 만들고, 그 우위성으로 약자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은 물고기 아내의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약하고 감추고 싶은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으로, 건강한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플레나 제보자의 이야기는 홍수설화가 가진 정화의 상징과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문화적 편견의 잣대로 상처를 주는 태도와 가부장의 권력이 더욱 확장되어 건강하지 않게 형성되는 관계를 토바호수 이야기는 물로 모두 싹 사라지게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수산티 제보자의 이야기는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성차, 나이 차이를 가부장적 사유로 낮게 바라보며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할 때, 그들의 상처와 슬픔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통제하고 차별하는 문화에 대해 경고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없었던 호수가 생긴 이야기를 통해 존재의 다름에 대해 차별하는 태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물고기 아내의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치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제보자가 「물고기 아내와 토바호수」 전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야기 밖에서 모든 것이 정화된 이후의 긍정적 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욕망인 평등한 관계맺기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자연과 인간,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다양한 국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받으며,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²⁷로 되돌아가고 싶은 원초적 상태를 꿈꾸게 하고, 서로의 경계가 없이 넘나드는 관계 맺기에 대해 상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평등한 관계 맺기의 상상에 ‘섬이 된 아이’의 표상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사모시르의 이름을 가진 이 아이는 자식의 도리보다 자신의 식욕을 먼저 채우다가 아버지의 화를 돌게 하고 결국엔 ‘엄마가 물고기니까 네가 그렇다.’라는 말도 듣는다. 수산티 제보자의 이야기를 보면, 꽤 큰 섬이 호수 가운데에 있고, 섬 이름이 아들의 이름인 사모시르로 전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 아들은 섬이 된 것일까?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아들을 안고 우는 엄마는 아들이 받은 상처를 자신의 슬픔과 동일시한다. 엄마의 눈물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들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한다. 그러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잠기지만, 아들은 엄마의 눈물에 잠기지 않고 섬이 된다. 돌봄의 과정에서 부당한 부성권력의 폭력적 언사도 아들의 존재를 지울 수 없었고, 아들의 상처를 자신의 슬픔과 동일시했던 어머니의 눈물도 자라나오는 아들의 주체성을 잠기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호수 속에 우뚝 솟은 사모시르섬으로 상징하고 있다. 가정을 통한 돌봄의 과정은 아버지의 폭력적 훈육의 태도가 아동에게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않게 부성권력을 최소화하고, 의존적 돌봄으로 융합되어 있던 아동이 어머니의 감정과 사유를 동일시하지 않으며, 나다움을 분리해야 하는 긴 주체화의 여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7 박소영, 「우렁각시 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문화연구』 제43호, 우리문화회, 2014, 465쪽.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다름과 차이, 나와 너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낮은 위치로 통제하려는 태도 속에서 다문화 아동들이 어떻게 평등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아시아 나라들의 문화가 가지는 숨은 가치와 원리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상호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존재로 자신들이 가진 삶의 자질을 명명해 보는 것이다. 이런 가치를 생성해 갈 때, 다문화가정의 아동들 역시 사모시르가 부성권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어머니와 동일시하지 않고 우뚝 솟은 섬이 된 것처럼, 문화사대주의나 문화적 편견의 잣대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안의 자질을 명명하며, 사모시르섬처럼 잠기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갈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아동은 돌봄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발현해갈 주체적 존재로 성장한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돌봄과 다문화 아동의 성장에는 어려움이 많다. 본 논의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문화적 편견의 잣대로 상처를 주는 태도와 가부장적 권력으로 인해 건강하지 않게 형성되는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성주의적 시각과 상호문화 감수성의 관점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긍정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 주체가 될 수 있는 서사적 길내기를 모색해 보았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구술한 모국의 설화 중 돌봄과 훈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설화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어머니들의 돌봄은 한국사회의 ‘애정적이고 통제적인’ 양면성을 가지기도 하고, 희생과 공감으로 어머니와 아동이 동일시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아버지의 훈육은 아동이 아버지의 틀과 다른 행동 방식에 대해서 폭력적인 언사로 통제하려는 경향의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때 설화를 통해 아동들은 어떻게 모성과 동일시하지 않고 부성권력을 축소해 가며 대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다문화 교육은 한국사회에 결혼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한국문화에 어떻게 잘 동화되어 가는가와 돌봄과 교육 등을 통해 잘 통합되는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일방적인 문화의 수용과 동화는 다른 문화로 살아온 이

주여성의 입장에서 무척 폭력적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주여성과 다문화 아동들은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에 순응해야 하는 고통도 동반한다. 이에 반해 상호문화의 관점은 문화적 정체성이 하나만이 아니라 복수일 수 있다고 보면서, 하나의 문화에 통합해 가는 방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 상호문화의 관점은 문화 비교를 넘어서 상호 간의 문화집단과 교류를 하며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생성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결혼이주민들과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한국문화의 동화 대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화들을 이어가는 가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복수의 문화 정체성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 ‘동화 혹은 배척’의 이분법을 넘어서, 두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상호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볼 수 있었다.

본 논의의 대상이 된 두 편의 이주민 구술설화를 통해, 돌봄과 훈육으로 ‘자연물이 된 아이’라는 낯선 화소가 가지는 풍부한 상징적 표상을 방법론으로 하여, 다문화 아동이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미를 생성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문화에서 소외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문화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상호 소통하게 하는 역할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명해 갈 수 있다. 이때 필리핀 설화의 ‘백 개의 눈’으로 상징된 ‘파인애플이 된 아이’를 통해 상호문화 주체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기존의 문화적 편견을 내재한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류문화에서 볼 수 없는 너머를 볼 상호문화의 다양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갈 때, 자신을 긍정하는 상호문화 주체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된다. ‘섬이 된 아이’인 사모시르가 폭력적인 부성권력을 최소화하며, 어머니의 눈물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지 않고 우뚝 솟은 섬이 된 것처럼, 문화적 편견을 가진 권력의 부당한 언사들에 대해 자신의 존재를 축소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나라들의 문화가 가지는 숨은 가치와 원리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며 상호문화의 주체로 스스로를 호명해 간다면, 학령기에 겪게 되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 역시 점차 치유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논의했다.

이후에 COVID-19 상황이 좋아진다면,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도서관 등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과 이주민 구술설화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며 ‘상호문화 주체’의 의미를 생성해 보는 교육활동들이 현장에서 이어져야 하는 실천적 과제가 남는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한국학 중앙연구원 성과포탈, 『다문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6-KFR-1230004>

단행본

로보트 존슨, 고혜경 역,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에코의 서재, 2007, 12쪽.
마텔레인 데이비스·데이빗 윌브릿지, 이재훈 역, 『울타리와 공간』,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7, 48, 148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홍빈·홍혜경 역, 『정신분석 강의』, 2010, 열린책들, 345-346쪽.

논문

김명혜, 「한국사회에서의 결혼 이주현상과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에 관하여: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의 행복한 결혼일까?」, 『현대사회과학연구』 제21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101-122쪽.

김미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제3권 1호, 아동보호연구학회, 2018, 59-96쪽.

김영순·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제8권 3호, 한국국제교류문학학회, 2019, 47-74쪽.

김정은,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38호,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201-238쪽.

——, 「아시아 열두 띠 설화의 동물 표상을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의 문

- 화교육」, 『구비문학연구』 제60호, 한국구비문학회, 2021, 119-159쪽.
- 김지연·오경자,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0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11, 647-661쪽.
- 김하나·이인재, 「교과교육학: 초등학생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그림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윤리교육연구』 제33호,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1-25쪽.
- 박소영, 「우렁각시 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문화연구』 제43호, 우리문화회, 2014, 459-491쪽.
- 박정윤·채지은·조몽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4권 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0, 101-121쪽.
- 변미희 외,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제8권 2호, 한국부모교육학회, 2011, 5-29쪽.
- 선주원, 「상호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과 학습 활동」, 『국제이해연구』 제12호,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7, 89-120쪽.
- 신효진, 「부모자녀관계와 다문화가족지향성이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및 한국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4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학학회, 2019, 597-604쪽.
- 이선애·최현정,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1권 2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6, 133-155쪽.
- 이정옥,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 『여성문학연구』 제3호, 한국여성문학회, 2000, 117-145쪽.
- 이지영·이주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제10권 2호, 대한아동복지학회, 2012, 83-101쪽.
- 이태열, 「최근 국제 혼인 증가의 특징」, KIRI 리포트(포커스), 2020, 23-31쪽.
- 장진태,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콤플렉스 및 차별인식: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0권 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1755-

1767쪽.

정옥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0권 2호,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3, 23-37쪽.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제32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07-136쪽.

Abstract

Exploring the Mutual Cultural Subjecthood of Multicultural Children Using the Problematic Aspect of Nurturing Represented through the Motif of ‘the Child who Became a Natural Object’

-With a Focus on Oral Folktales of Marriage Migrants in Korea

Kim Jungeun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awareness that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feminist views should be simultaneously applied to solve the parenting difficulties of women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analyses both the Filipino oral folktale *The Child Who Became a Pineapple* and the Indonesian oral folktale *The Fish Wife and Lake Toba*. Both stories are oral folktal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and they both contain the motif of ‘a child who became a natural object’ because of parents’ desire for parenting control. Moreover, through the natural process of putting unfamiliar Asian cultures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and identifying the value therein, this paper attempted to unravel the complex relationships involved in the desire for control during parenting from more diverse perspectives. Furthermore,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process of recognizing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who complain of difficulties in cultural communication by nurturing them as subjects of mutual culture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In one Filipino folktale, there is ‘a child who became a pineapple’ through 100 or 1,000 eyes; the process of sharing the symbolism of this story makes us reconsider the pressure and conflict of maternal care that controls and cares for children with excessive affection. The process of exchanging the symbol of ‘the child who became an island’ from the legend of Lake Toba in Indonesian folktales demonstrates the son’s response against the violent problem of a father when he tries to control and discipline his son. By extending this to multicultural families, I tried to propose a process of recognizing themselves

as the subject of mutual culture so that the self-esteem of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who complain of difficulties in 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realistic upbringing can be raised.

The process of exchanging the symbol of 'the child who became an island' from the legend of Lake Toba in Indonesian folktales demonstrates the violent problem of a father when he tries to control his son. By extending this to multicultural families, I tried to propose a process of recognizing the self-esteem of immigrant women and children who complain of difficulties in 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process of taking care of them as subjects of mutual culture so that they can change their self-esteem.

Keywords: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maternal care, paternal authoritative care, multicultural children, oral folktales of immigrants, mutual cultural subject, desire to control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